

# 고성 송학동고분군과 고자국

하 승 철\*

## 〈목 차〉

- I. 머리말
- II. 고자국과 소가야
- III. 송학동고분군과 주변유적
- IV. 고자국의 묘제와 출토유물
- V. 고자국의 성립과 전개
- VI. 맺음말

## 국문요약

고성에 존재했던 가야 소국에 대해서는 古資彌凍國, 古自國, 小加耶 등 다양한 명칭이 확인된다. 소가야는 가야 북부지역의 대가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남강 및 남해안에 존재했던 소국을 통칭하여 새롭게 부여된 명칭일 가능성이 높다. 소가야를 구성했던 여러 소국 중 고자국은 고성을 중심으로 남해안 일대에 영향력을 떨친 유력 國이다.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고자국의 최고 수장층 묘역으로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한 고자국의 문화적 특성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차상위 고분군은 당동만을 배경으로 조성된 내산리고분군과 영천강 수계의 연당리고분군이다.

고자국의 묘제는 목곽묘-수혈식석곽묘(다곽식분구묘)-횡혈식석실묘로 변한다. 묘제의 변화는 고자국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자국의 묘제는 5세기 후엽부터 대변화가 나타난다. 이전과 달리 고대한 다곽식분구묘가 수장층 묘제로 채택된다. 6세기 전엽에는 북부구주지역 석실이 수용되면서 송학동유형 석실이 유행한다. 영산강유역 정치체-소가야(고자국)-일본 북부구주 정치체의 긴밀한 연대가 묘제에 반영된 결과이다.

\* 경남발전연구원 조사연구위원

고자국 성립기는 동외동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남해안을 통해 김해 가락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강력한 김해 세력에 의해 위축된 상태로 보인다. 고자국의 발전은 대외교류와 관련 깊다. 고자국은 5세기 후반부터 백제-영산강 유역-가야-일본 규슈-왜 왕권을 연결시켜주는 국제교역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남해안-남강을 통해 가야 내륙지역에 문물을 전달하는 관문사회로서 기능하였다.

주제어 : 고성, 송학동고분군, 고자국, 소가야, 묘제

---

## I. 머리말

한반도 남해안에 위치한 고성군은 동북쪽으로 창원시, 서쪽으로 사천시, 북쪽으로 진주시와 접하고, 남쪽으로 한려수도에 면한다. 내륙과는 500m 내외의 산지로 막혀있으나 해안은 고성만과 당동만, 적포만 등 조건이 양호한 내만 항구로 둘러싸여 있다. 중심지인 고성읍 일대는 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소국의 중심 취락이 형성되기에 좋은 여건이다. 남쪽으로 돌출한 고성반도는 통영과 거제도도 이어진다.

고성은 동남해안에서 서남해안으로 연결되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교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또한 김해를 거치지 않고 대한해협을 건널 수 있는 뱃길이 열려있어 국제교역에도 유리하였다. 때문에 남해안으로 길게 돌출한 고성반도는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군사 요충지로 활용되었다.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고자국의 최고 수장층 묘역으로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한 고자국의 문화적 특성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송학동고분군은 거대한 고총이 주능선과 가지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내륙의 중심 고분군과 차이가 확연하고, 누세대적인 고분 축조과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가야는 한반도 남부의 내륙과 해양을 배경으로 성장하였다. 고자국은 가야의 해양문화를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에 해당한다.

본 글에서는 송학동고분군을 중심으로 고성지역의 가야유적을 분석하여 고자국 고분문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묘제와 출토유물의 성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남해안을 배경으로 성장한 가야 소국에 대한 이해는 내륙에 편중된 가야사 연구 시각을 교정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고자국과 소가야

가야에 대한 기록은 극히 적지만 『삼국지·삼국사기·일본서기』등과 고고학 자료로 파악하면 12개 정도의 가야제국이 존재했다고 한다.<sup>1)</sup> 근년 문헌과 고고학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 소국들의 위치도 점차 밝혀지고 있다. 加耶諸國의

1) 이영식, 『문헌사학으로 본 가야』, 『가야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단연구원, 진인진, 2016, 524쪽.

존재를 인식해감에 따라 기존에 형성된 ‘五伽耶’, ‘六伽耶’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졌다.

고성에 존재했던 가야 소국에 대해서는 古資彌凍國, 古自國, 小伽耶 등 다양한 명칭이 확인된다. 이 중 ‘고자국’과 ‘소가야’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기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소가야의 중심을 고성으로 이해하였다. 최근에는 고자국과 소가야를 별개로 보거나 고자국에서 소가야로 확대되었다는 견해를 가진 연구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형기<sup>2)</sup>는 고자국은 고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이며, 소가야는 고자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맹체로 이해하여 ‘小伽耶聯盟體’로 명명하였다. 김규운<sup>3)</sup>은 3~4세기 고자국에서 5~6세기 소가야로 이행하며, 소가야는 고성과 산청 중촌리 세력이 서로 연합을 이룬 구조로 이해하였다. 김지연<sup>4)</sup>은 소가야를 고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라가야·대가야와 함께 존재한 또 다른 문화권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여창현<sup>5)</sup>은 소가야를 고성 송학동고분군 축조집단과 산청 중촌리고분군 축조집단이 연계된 연맹의 구조로 파악하였다.

## 1. 문헌기록

고성 지역 정치체는 중국 역사서인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에 ‘弁辰古資彌凍國’으로 등장한다. 『삼국지』는 3세기 후반 西晉의 陳壽가 편찬한 것으로 기원전 2세기부터 3세기 중엽까지의 삼한 사정을 기록하고 있다. 8세기 『日本書紀』에 기록된 久嗟國과 古嗟國, 12세기 『삼국사기』물계자전에 기록된 古史浦國도 고성을 일컫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남해안 일대에 있었던 浦上八國이 등장한다.

### 【포상팔국 관련 기사】

秋 7월에 浦上八國이 加羅를 침범해왔으므로 加羅王子가 와서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태자 于老와 伊伐滄 利音에게 명해 6部の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八國將軍을 죽이고 포로로 잡혔던 6천명을 빼앗아 돌려주었다.<sup>6)</sup>

2) 이형기, 『小伽耶聯盟體의 成立과 그 推移』, 『民族文化論叢』제17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7, 14쪽.

3) 김규운, 『考古資料로 본 5~6세기 小伽耶의 變遷』,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74쪽.

4) 김지연, 『小伽耶樣式 土器의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9쪽.

5) 여창현, 『小伽耶聯盟體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6) “十四年 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求 王命太子于老與伊伐滄利音 將六部兵 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 六千人還之.”(『三國史記』卷2 新羅本紀 2 奈解尼師今條).

勿稽子是 奈解尼師今 때 사람이다. (中略) 이 때에 浦上八國이 공모하여 阿羅國을 치니 阿羅에서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다. 尼師今이 왕의 손자 捺音을 시켜 近郡과 6部の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하게하니 드디어 八國兵을 쳐부수었다. (中略) 그 후 3년에 骨浦, 柒浦, 古史浦 三國인이 竭火城에 와서 공격하므로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구하니 三國의 군대가 크게 패하였다.<sup>7)</sup>

제10대 奈解王 17년 壬辰에 保羅國, 古自國, 史勿國 등 八國이 힘을 합하여 邊境을 침범하였다. 왕이 태자 捺音, 장군 一伐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대항케 하니 八國이 모두 항복하였다. (中略) 10년 乙未에 骨浦國 등 三國의 왕이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竭火를 침공하므로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막으니 세 나라가 모두 패하였다.<sup>8)</sup>

포상팔국은 骨浦國·漆浦國·古史浦國·保羅國·古自國·史勿國 등이다. 이 중 古史浦國과 古自國이 고성지역에 있었던 소국을 가리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sup>9)</sup> 또한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康州 固城郡條의 “本古自郡 景德王改名 今因之”에서도 ‘古自’가 고성의 옛 지명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백승옥<sup>10)</sup>에 의하면, 古資彌凍國은 고성지역에 있었던 당시 정치세력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古自國은 古資彌凍國의 우리식 표현이다. 久嗟와 古嗟는 古自國에 대한 일본식 표현이라 한다. 즉, 상기의 명칭은 모두 음운표기상의 차이일 뿐 모두 고자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고자국은 고성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다음은 ‘小加耶’에 대해 살펴보자. ‘小加耶’라는 명칭은 고려시대 一然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등장한 이후 『고려사』지리지에 古自郡의 전신을 ‘小加耶國’이라 칭하였고,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小伽倻國’으로 기록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加耶國’ 또는 ‘小伽倻’로 남겨지게 되면서 이후 대부분의 邑誌나 地理志에 고성을 칭하는 것으로 반복해서 기록되어 왔다. 그런 까닭으

7) “勿稽子奈解尼師今時人也 ..... 時八浦上國同謀伐阿羅國 阿羅使來請救 尼師今使王孫捺音 率近郡及六部軍往救 遂敗八國兵 ..... 後三年 骨浦柒浦古史浦三國人 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三國史記』卷48 列傳 8 勿稽子傳).

8) “第十奈解王即位十七年壬辰 保羅國古自國(今固城)史勿國(今泗州)等八國 併力來侵邊境王命太子捺音將軍一伐等 率兵拒之 八國皆降 ..... 十年乙未 骨浦國(今合浦也)等三國王 各率兵來攻竭火(疑屈弗也 今蔚州) 王親率禦之 三國皆敗”(『三國遺事』卷5 勿稽子傳).

9) 백승옥, 『固城 古自國의 형성과 변천』 『한국 고대사회의 지방지배』, 신서원, 1997.

10) 앞의 논문, 171~172쪽.

로 ‘소가야’를 고성으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미 알려져 있듯이 ‘소가야’는 후대에 부여된 명칭으로<sup>11)</sup> ‘여러 가야 중의 작은 가야’란 의미이다. 이는 ‘여러 가야 중의 큰 가야’란 의미의 ‘대가야’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부여된 명칭일 것이다.<sup>12)</sup> 고성에 존재했던 가야 집단이 스스로를 낮추어 ‘소가야’로 불렸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sup>13)</sup> 포상팔국 기사에서 보듯 경남 서부지역에는 다수의 가야 소국이 존재했고 그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국명이 존재했다. 이들 가야 소국은 멸망 후 정치적, 문화적인 범위를 기준으로 표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소가야’는 가야 북부지역의 ‘대가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남강 및 남해안에 존재했던 소국을 통칭하여 새롭게 부여된 명칭일 가능성이 높다.

## 2. 고고학 자료

문헌기록과 함께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도 경남 서부지역 소국들의 존재를 살펴 볼 수 있다. 고고학에서는 중심고분군과 중하위고분군의 관계망, 토기양식의 분포와 묘제를 통해 정치체를 유추하기도 한다.

5세기에 접어들면서 남강수계와 남해안 일대에는 대가야, 아라가야 토기양식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토기문화권이 형성된다. 경남 서부지역에 형성된 문화권은 6세기에 대가야토기의 확산과 더불어 점차 분포권이 축소되지만 가야 멸망까지 산청과 진주, 고성을 중심으로 뚜렷한 분포권을 형성한다. 묘제도 지역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다곽식봉토분과 분구묘, 송학동유형 석실 등이 대표적이다. 토기양식과 묘제로 보면 경남 서부지역에 공통의 문화권이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화권을 하나의 단일 정치체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대가야, 아라가야 보다 넓은 범위의 가야 一國을 상징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강수계와 남해안 일대에는 소국의 존재를 알려주는 중심고분군과 중소형 고분군이 일정한 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중심고분군은 산청 중촌리고분군과 합천 삼가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이다.

결국 토기양식과 묘제로 보면 남강수계와 남해안은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지만 중심고분군과 중하위고분군의 관계망으로 보아 다수의 소국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소국들은 지역적,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강하고, 가야 북부 지역의 대가야와 함안의 아라가야에 대비되는 정치·문화권을 형성하였다. 포상

11) 김태식, 『加那의 社會發展段階』,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한국고대사연구회편, 1990, 55~56쪽.

12) 조영현, 『소가야의 묘제』, 『고성』, 국립진주박물관, 2014, 166쪽.

13) 백승욱, 앞의 논문, 171~172쪽.

팔국 기사에서 보듯 이들 소국은 독자성을 유지하지만 때론 연합체를 형성하면서 당면 과제에 대응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로 판단하면, 가야멸망 후 경남 서부지역에 존재했던 소국들을 통칭하여 '소가야'로 불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소가야는 몇 개의 권역별 중심세력이 등장하여 횡적으로 연결되고, 권역별로 종적구조가 생겼을 것으로 가정된다. 중심고분군을 축조한 거점지역과 주변의 중·소형급 고분군 축조 집단은 예속관계로 상정되고, 이러한 복수의 단위가 연계된 것이 소가야의 내부구조가 될 것이다. 소가야의 대권역은 낙남정맥을 기준으로 남강수계권과 남해안권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산청권·합천 삼가권·진주권이 중심이고, 후자는 고성권을 중심으로 통영권·사천권·하동권이 포함된다. 최고 수장층의 존재를 보여주는 고총과 중심고분군의 존재로 추정하면 남강수계권은 산청 증촌리고분군과 합천 삼가고분군 축조 집단이 중심이고, 남해안권은 고성 송학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결집된다. 포상팔국 연합은 남해안권에 존재했던 소가야 소국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상기의 가정을 바탕으로 본 글에서는 고성지역 가야 소국을 '고자국'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합천 삼가·산청·진주·고성·사천·하동·통영·남해 등 묘제와 출토유물에서 동질성이 강한 경남 서부지역 가야 소국을 통칭하여 '소가야'로 부르기로 한다.

### Ⅲ. 송학동고분군과 주변유적

고성지역의 가야유적은 대다수가 고분군으로 30~40개소 정도이다.<sup>14)</sup> 이 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분군은 송학동고분군과 기월리고분군, 울대리고분군, 내산리고분군, 연당리고분군, 신용리고분군, 오방리고분군으로 7곳이다. 고성지역 고분은 고분의 규모와 유물의 질량에서 위계가 뚜렷하다. 직경 20m 이상의 고분은 송학동고분군을 중심으로 고성읍 일대에 밀집하고, 차상위 고분군은 당동만을 배경으로 조성된 내산리고분군과 영천강 수계의 연당리고분군이다. 후술하겠지만 분구묘는 고자국의 핵심인 송학동·울대리·내산리 고분군에 조성된다.(도 3)

생활유적은 동외동패총을 제외하면 그 실체가 뚜렷하지 않지만 다량의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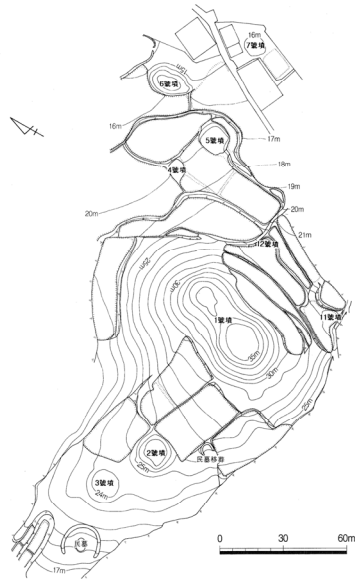
14) 동아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고성군-』, 2004.

기편이 수습된 유물산포지를 중심으로 생활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가야시기의 관방유적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지만 고성읍 남산토성과 만립산토성, 배둔리토성, 화산리산성, 철마산성에서 다수의 가야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고자국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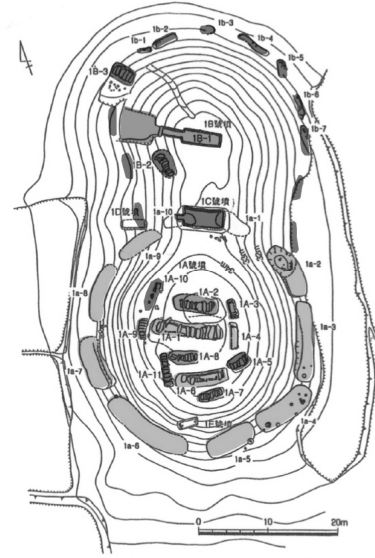
송학동고분군<sup>15)</sup>은 고성만을 바라보는 해발 25m 전후의 낮은 구릉에 조성된 고자국 최대고분군이다. 기존에는 무기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10기의 고분군을 송학동고분군 1, 고성여자중학교와 동산교회 앞에 남아있는 3기의 고분군을 송학동고분군 2로 명명하였다. 또한 송학동고분군의 북편에 위치한 고분을 기월리고분군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삼자 모두 연결된 구릉에 축조된 동일한 성격의 고분군으로 파악되어 ‘송학동고분군’으로 통합하였다. 송학동고분군 1은 당초 10여기의 고총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7기만 잔존한다.

송학동 1호분은 1914년 일본인 도리이 류우초(鳥居龍藏)에 의해 간단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관련 내용은 자세히 알려진 바 없고, 당시 촬영된 유리 원판 사진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1호분은 외형이 일본 고분시대 전방후원분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발표되기도 하고, 단지 두 개의 원분이 결합된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한때 한국과 일본의 고분 연구자들 사이에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송학동 1호분은 3기의 분구묘가 연결하여 축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소되었다. 먼저 구릉의 남편에 1A호분이 축조되었고, 그 북편에 연결하여 1B호분이 축조되었다. 마지막에 축조된 1C호분은 1A호분과 1B호분이 맞닿은 지점을 굴착하여 축조하였다. 1A호분과 1C호분의 주위로는 장타원형의 구덩이를 연속적으로 굴착하여 단절형 주구를 조성하였다. 주구에는 적갈색 원통형기대를 세워 부장하였다. 송학동 1호분은 전체 길이 75m 정도로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고분과 비교하면 큰 편에 속하고 1B호분 석실은 해남 장고봉고분과 닮은 점이 많다. 고분의 주위에 설치된 단절형 주구 역시 가야 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형태로 함평 신덕고분, 해남 창리 용두고분, 나주 신촌리 9호분, 나주 북암리 3호분 주구와 흡사하다. 또한 분구 하단에 원통형토기(분주토기)를 배치한 점도 가야지역 고분에서는 생소한 것으로 영산강유역 원통형토기의 매장의례를 모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동아대학교박물관, 『고성 송학동고분군』, 2005.



도 1. 송학동고분군의 분포



도 2. 송학동 1호분

기월리고분군은 세 곳의 구릉 정상부에 분산되어 축조되어 있는데 기월리 1·2·3으로 명명되어 있다. 기월리고분 1은 칠성고등학교 뒤편의 해발 26m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는데 현재는 봉토분 2기만이 남아있다. 기월리고분 2는 대형 봉토분으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하였다. 기월리고분 3은 해발 40m의 구릉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데 고성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봉분의 직경 50m, 높이 5m에 달한다.

울대리고분군<sup>16)</sup>은 고성읍 남동쪽에 위치하며 낮은 구릉에 4기의 분구묘가 남아 있었다. 이 중 1972년 한전 고성출장소 건립으로 1기가 파괴되었고, 2호분은 1989년 14번 국도건설에 포함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내산리고분군<sup>17)</sup>은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산185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당동만이 위치하고 동쪽으로 남해안의 적포만이 바라보이는 낮은 구릉에 고분군이 조성되어 있는데, 직경 20m 내외의 고총을 포함하여 60여기의 중·대형 고분이 분포한다. 고분군은 1997~2005년까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7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고총고분 12기와 주변의 소형 석곽묘들을 조사하였다. 고총고분은 대부분 다곽식구조이며 매장주체부는 목곽묘 1기, 수혈식

16) 국립진주박물관, 『고성 울대리 2호분』, 1990.

17)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고성내산리고분군 I~III』, 2002~2007.

석곽묘 56기, 옹관묘 3기, 횡혈식석실분 4기이다. 고분의 축조시기는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연당리고분군<sup>18)</sup>은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산199번지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이곳은 당동만에서 내륙인 진주·사천으로 향하는 주요 교통로에 해당하며, 영오강과 영천강 주변의 곡간평야를 따라 다수의 고분군이 분포한다. 연당리고분군은 이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심고분군이며 성산리고분군과 영대리고분군, 오동리고분군 등이 차상위 고분군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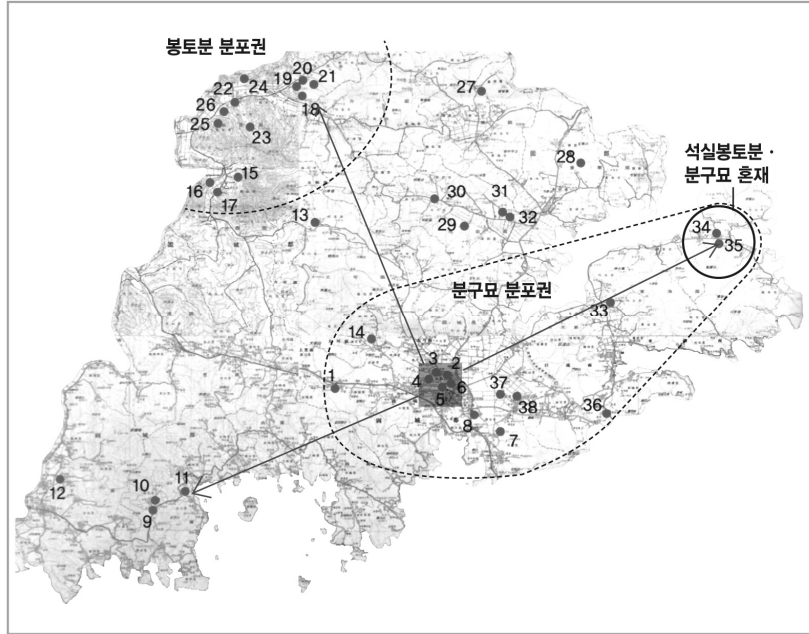
연당리고분군에서 확인된 고총은 26기로 능선의 정선부를 따라 대형분이 분포하고 구릉 사면에 소형의 봉토분이 밀집 분포한다. 1991년 경남대학교박물관에 의해 4기의 봉토분이 조사되었다. 연당리 18호분과 20호분은 횡혈식석실분이며, 14호분과 23호분은 석곽 봉토분이다. 14호분을 제외한 3기의 고분에서 주구가 확인되었고, 주구에서 다량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석곽 봉토분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부분 소가야토기이나 횡혈식석실분에는 신라계 토기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고성 오방리고분은 경지정리작업 중 확인되어 1972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긴급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석곽묘는 석관계석곽묘로 길이 170cm, 너비 40cm, 잔존 깊이 40cm로 소형이다. 바닥에는 판석을 깔았고, 장벽과 단벽은 판석을 수직하여 축조하였다. 석곽 내부에서 수평구연호와 뚜껑 한 점이 출토되었다.

고성 신용리유적<sup>19)</sup>은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47번지 일원에 해당한다. 유적은 벽방산과 문암산에서 뻗어 만나는 구릉 말단부에 해당하며 북동쪽에는 당동만이 위치한다.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동과 석관묘 4기, 삼국시대 석곽묘와 석실묘 131기, 고려·조선시대 묘 64기가 조사되었다. 고자국시기의 석곽묘는 단독곽과 2~4기의 석곽묘로 구성된 다곽식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다곽식은 대부분 6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유물은 소가야양식 토기와 철부·철검·철촉 등 소량의 철기가 부장된다. 11호 석곽묘에는 대가야고배와 재지화된 신라양식 대부장경호가 부장되고 있어 토기구성의 변화가 나타난다. 석실묘는 고자국 멸망 후 축조된 것이며 유물도 신라토기로 대체되었다.

18) 경남대학교박물관, 『고성 연당리고분군』, 1994.

19) 동서문물연구원, 『固城 新龍里遺蹟』, 2009.



도 3. 고성지역 고분군의 분포현황

(5: 송학동고분군, 8: 울대리고분군, 9: 오방리고분군, 18: 연당리고분군, 34: 내산리고분군)

#### IV. 고자국의 묘제와 출토유물

송학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고자국의 묘제는 목곽묘-수혈식석곽묘(다곽식분구묘)-횡혈식석실묘로 변한다. 묘제의 변화는 고자국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1. 목곽묘

가야지역 목곽묘는 2세기 후반에 등장하지만 고성지역에는 2~3세기에 해당하는 목곽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성 솔섬유적에서 전기 와질토기 단계의 석관묘가 조사된 바 있으나 그 이후 묘제의 양상은 알기 어렵다. 현재까지 조사된 가장 이른 시기의 목곽묘는 송학동 1A호분 남쪽 트랜치에서 확인된 1E호묘이다. 출토된 유물의 형식으로 보아 4세기 후엽에 해당한다. 송학동고분군에 본격적으로 고총이 형성되기 이전에 축조된 소형 목곽묘로 길이 3.20m, 너비 1.20m이다.

주변 일대에서 더 이상의 목곽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군집된 양상으로 보긴 힘들다. 함안 말이산고분군 등 내륙지역 중심고분군에 4세기부터 이미 목곽묘가 군집되고 있는 양상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향후 조사 성과를 기대하지만 송학동고분군 일대는 소규모의 목곽묘가 산발적으로 조성된 모습이지 않을까 추측된다. 즉, 4세기에 목곽묘가 축조될 시기에 송학동고분군은 수장묘역으로 자리 매김하지 않았던 것이다.

송학동 1E호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바다에서 파수부배·철검·철착·철부가 출토되었고, 목개(木蓋) 상부나 봉토에 부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형기대·원통형기대·단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소가야토기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은 고식도질토기이다. 동시기 금관가야 수장층 묘역인 김해 대성동고분군에 대형 목곽묘가 축조되고, 마구·무구·갑주·장신구 등 위세품이 다량 부장되고 있는 사실에 비하면 격차가 크다.

## 2. 수혈식석곽묘, 다곽식분구묘의 유행

수혈식석곽묘는 5세기 전반에 출현하여 가야가 멸망하는 6세기 중엽까지 축조된다. 송학동고분군과 양촌리고분군, 신용리고분군 등에서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다.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석곽묘는 송학동 1D호묘이다. 1D호묘는 1C호분의 묘도부에서 확인되었는데 1호분 조성 이전에 축조된 소형 석곽묘이다. 출토된 개와 고배의 형식으로 보아 연대는 5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구릉 정상부에 1기의 소형 석곽묘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5세기 전반까지 송학동고분군은 수장층 묘역으로 활용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세기 후엽부터 고자국 묘제에는 대변화가 나타난다. 이전과 달리 높게 성토한 분구에 다수의 석곽묘를 축조한 다곽식분구묘가 수장층 묘제로 채택된다. 분구묘는 봉분묘와 달리 분구를 먼저 조성한 후 분구 상부를 굴착하여 매장주체부를 축조하는 고분을 일컫는다. 가야에서 분구묘가 확인된 지역은 고성과 통영이다. 분구묘는 영산강유역에서 남해안을 따라 고성, 통영까지 확산된다. 고성은 가야에서 분구묘가 가장 유행한 지역이자 분포의 동쪽 한계선에 해당한다. 고성지역 분구묘는 송학동고분군을 비롯하여 기월리·울대리·내산리 고분군 등 고자국 수장층의 주 묘제로 정착하였다.

분구묘의 도입 시기는 통영 남평리 10호분의 사례로 보아 5세기 전반이다. 분구묘인 송학동 1A호분은 5세기 후엽에 해당하고, 내산리 8호분·62호분·28호분은 6세기 전엽, 내산리 1호분·36호분·21호분, 울대리 2호분은 6세기 중엽

에 해당한다.

고성지역 분구묘는 최초 조성된 주곽을 중심으로 1~3기의 석곽을 나란히 배치하며 분구의 가장자리에 호상(弧狀)으로 석곽을 설치하거나 주곽의 단벽쪽 외곽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석곽을 배치한다. 중앙에 선축된 매장주체부가 대체로 큰 편이지만 주곽과 주변 석곽의 규모가 비슷한 점도 특징이다. 대가야의 경우 월등히 규모가 큰 주곽을 중심으로 부곽을 배치하고 그 외곽으로 순장곽을 배치하고 있어 고성지역 분구묘와 차이가 크다.

한반도 서남부 지역은 기원전 2세기부터 분구묘가 지속적으로 축조되고 있으나 가야는 봉분묘가 주된 묘제이며 분구묘는 5세기 이후에 고성·통영지역에 돌발적으로 출현한다. 따라서 분구묘는 가야에는 이질적인 묘제였음은 확실하다. 고성·통영지역 분구묘는 출현기부터 선분구 후매장, 다장(多葬)을 염두에 둔 묘역 조성, 단절형 주구 등 분구묘의 모든 특징이 구비되어 있다. 이는 어떤 계기에 의해 매장의례와 분구 축조기술이 동시에 도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통영과 고성지역에 등장한 분구묘의 발신처는 영산강유역 정치체일 가능성이 높다. 5세기 후엽에 분구 직경 30m, 높이 4.6m, 다장(多葬)이 행해진 원대형 분구묘가 유행하는 곳은 영산강유역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나주 복암리 3호분을 들 수 있다. 복암리 3호분은 선형 제형분구에서 4~5m를 성토한 후 대형 옹관묘를 조성하고, 이후 새롭게 도입된 석실묘도 추가하여 조성하였다. 송학동 1호분도 4~5m를 성토한 후 석곽묘를 축조하고 이후 도입된 석실묘를 추가하였다. 송학동 1B호분 석실과 복암리 3호분 96석실은 축조시기도 비슷하고 석실묘의 계통이 일본 북부구주 석실과 관련 깊은 점도 동일하다. 또한 송학동 1호분 주구에서 출토된 원통형토기는 가야토기와는 이질적인 형태로 나주 복암리 2호분 등 영산강유역 출토 원통형토기와 흡사하다.

5세기 중엽부터 고성, 통영지역에 영산강유역의 분구묘가 도입되고, 고자국 수장묘에 마한·백제계 유물이 다량 출토되며, 일본 북부구주지역 석실이 출현하는 현상은 단순한 교류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의 남정과 신라의 가야지역(김해·부산지역) 진출에 따른 영산강유역 정치체 - 소가야(고자국) - 일본 북부구주 정치체의 연대가 한층 강화된 상황이 묘제에 반영된 결과이다.

고자국에 축조된 분구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송학동 1A호분

1A호분은 동-서 28.5m, 남-북 30.0m로 거의 원형에 가깝고, 높이는 정지

된 지면에서 약 4.6m이다.<sup>20)</sup> 분구 주위로는 단절형 주구를 조성하였다. 분구는 정지면에 흑갈색점질토를 깔고 그 위에 4.3m 높이까지 방사상으로 구획성토 하였다. 이후 높게 성토된 분구를 굴착하여 모두 11기의 석곽묘를 축조하였다. 석곽묘는 가장 규모가 큰 1A-1호묘를 중심으로 10기의 석곽묘가 배치되었다. 세분하면 3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분구의 중앙에 1A-1호묘와 1A-6호묘를 나란히 설치하고 1A-1호묘와 직교하게 1A-4호묘를 축조한다. 2단계는 1A-1호묘를 둘러싸고 1A-2호묘·1A-3호묘·1A-8호묘·1A-9호묘를 축조하고, 1A-2호묘와 나란히 1A-7호묘를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외곽에 1A-5호묘·1A-10호묘·1A-11호묘 3기의 석곽묘가 배치되었다. 출토유물의 형식변화를 기준으로 편년하면, 1단계가 5세기 후엽에 해당하고, 2단계는 6세기 전엽, 3단계는 6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석곽의 규모는 중앙에 위치한 1A-1호묘가 가장 크고, 1A-6호묘가 길이 6.20m로 그 다음이며 1A-2호묘·1A-9호묘·1A-11호묘가 4.0~5.0m로 비슷하고, 1A-3호묘·1A-4호묘·1A-5호묘·1A-7호묘가 2.0~3.5m로 가장 작다.

유물은 토기류, 무기류, 마구류, 장신구류가 다량 부장되어 고자국 문화의 실상을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토기류는 소가야토기를 중심으로 대가야·신라·백제·왜 등 주변 각국의 토기가 부장되었고, 장식마구는 중심 석곽인 1A-1호묘·1A-6호묘에 집중된다. 대부분의 석곽묘에서 곡옥·관옥·조옥·산반옥·다면옥 등 각종 옥과 유리제 구슬로 구성된 경식이 다량 출토되었고, 1A-4호묘·1A-9호묘·1A-11호묘에서 금제이식과 청동제팔찌가 출토되었다.

중앙에 위치한 1A-1호 석곽은 길이 8.25m, 너비 0.99m(동)~1.09m(서), 높이 1.3m 내외로 소가야 석곽묘 중 길이가 가장 길다. 1A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소가야 토기를 중심으로 대가야계 토기, 일본의 스에키가 포함되며, 철촉·철모·대도·찰갑 등 무기·무구류, 등자·행엽·안교·마구·기꽃이·마령 등 장식마구가 다량 출토되었다. 장신구류로는 옥과 유리제 구슬로 구성된 경식이 많다. 고분의 규모와 부장유물에서 고자국 최고 왕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2) 기월리 1호분

기월리 1호분은 매장주체부와 분구의 상부가 유실되었지만 분구 축조과정과 구획성토의 양상이 뚜렷하다. 먼저 구릉 상부를 정지하고 흑갈색점질토를 전면에 깔아 고분의 범위를 획정하였다. 분구의 주위 경사면에는 단절형 주구를

<sup>20)</sup> 봉분의 계측치는 조영현의 논고에 따른다. 조영현, 『소가야의 묘제』 『고성』, 국립진주박물관 특별전 도록, 2014.

설치한다. 분구는 동-서 19.5m, 남-북 18.2m로 원분이며 잔존 높이 1.8m 내외이다. 분구는 흑갈색점질토를 구획재로 하여 구획하였으며 8분된다. 잔존하는 분구의 최상단에서 확인된 묘광과 벽석으로 보아 매장주체부는 석곽일 가능성이 높다. 묘광의 잔존 규모는 길이 7.30m, 폭 2.60m, 높이 30cm이다. 정지면에서 1.8m 높이에 벽석의 최하단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분구의 당초 높이는 3m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복원하면, 3~4차례의 축조공정을 통해 높이 1.8m 이상의 분구(2.5m 정도로 추정)를 조성하고 분구를 굴착하여 석곽묘를 축조하였다.<sup>21)</sup> 이후 석곽 상부를 덮어 봉분을 완성하였다. 유물은 대부분 유실되고 소가야 토기와 마한·백제계토기, 신라계토기 몇 점만 수습되었다. 고성, 통영 지역에 유행한 다곽식 분구묘와 달리 단독 매장지로 완결된 것이 특징이다.(사진 1, 도 4)



사진 1. 기월리 1호분(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도 4. 기월리 1호분

### 3) 울대리 2호분

울대리 2호분은 지름 22m, 높이 약 3m의 분구묘로 주곽을 포함해 5기의 석곽이 설치되었다. 먼저 구릉 정상부를 평탄화한 후 흑갈색점질토를 20~30cm 정도 깔았다. 그 위로 약 2m 정도의 분구를 구축하였는데 구획성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분할된 분구는 물성이 다른 흙을 성토하여 응집력을 높였다. 주곽은 분구의 중앙부를 되파기하여 축조하였는데 규모는 5.11m, 폭 1.1m이다. 석곽의 바닥은 구지표면 보다 1m 이상 높은 지점에 위치한다. 주곽과 나란히 배치된 석곽은 5m 이상으로 다소 큰 편이나 주곽에 직교하는 석곽은 작다. 2·3호 석곽을 축조한 후 4·5호 석곽을 축조하였는데 시차는 크지 않다. 석곽은 점판암계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벽석은 유구 바닥면보다 30~40cm 깊게 굴착한

21)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고성 기월리1호분』, 2013.

후 쌓아올렸다. 분구 가장자리에 둘러진 주구는 배수의 기능 보다는 고분을 구획하는 의미가 강하다. 주구는 완전히 둘러지지 않고 북쪽 일부가 끊어져 있어 출입구로 이용된 듯하다. 주구의 폭은 1.2~2.2m이고 깊이는 15~80cm이다. 주구에는 매장외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토기가 다량 출토되었다.

유물은 1호 석곽에서 신라계 완형토기 1점과 다수의 철촉·철모가 출토되었다. 2호 석곽에서 대가야계 장경호·개·개배, 신라계 고배·개, 소가야 고배·개배·파배·광구소호·통형기대가 출토되었고, 등자·교구·재갈·철모·도자·꺾쇠 등 철기류도 다량 출토되었다. 3호 석곽에서는 대가야계 파배·고리형기대, 신라계 대부장경호, 소가야 고배·개배·연질옹 등이 출토되었고, 청동팔찌와 경식, 귀걸이 등 장신구류도 출토되었다. 4호와 5호 석곽은 파괴가 극심하여 유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나 4호묘 바닥에서 방추차 1점과 경식이 수습되었다. 그밖에 봉토에서 소가야 발형기대·수평구연호·고배·개배, 대가야 개배가 출토되었다. 울대리 2호분에서 출토된 대가야, 신라계 유물을 통해 고자국의 다원적인 대외관계를 엿볼 수 있다.

#### 4) 내산리고분군

내산리고분군은 분구묘와 봉분묘가 혼재한다. 분구묘는 1호분·8호분·21호분·28호분·36호분·63호분 등이다.

1호분은 분구 직경 19m, 잔존높이 3.5m이며 주곽을 중심으로 5기의 석곽묘가 축조된 다곽식분구묘이다. 묘역을 정지하고 흑색, 적색 점질토를 1~2m 이상 성토하여 분구를 조성한 후, 굴착하여 석곽묘를 축조하였다.

8호분은 분구 직경 16m, 잔존높이 2.5m이며 주곽을 중심으로 6기의 석곽묘와 2기의 옹관묘를 조성한 다곽식 분구묘이다. 묘역을 정지하고 흑색, 적색 점질토를 1~2m 이상 성토하여 분구를 조성한 후, 굴착하여 석곽묘를 축조하였다. 주곽과 4곽은 비슷한 규모이며 나란히 조성하였고, 나머지는 외곽으로 배치하였다. 분구 주위로 주구를 설치하였다.

21호분은 분구 직경 19m, 잔존 높이 2.5m이며 분구에 14기의 석곽과 1기의 목곽, 1기의 옹관묘가 축조된 다곽식 분구묘이다. 고분은 적갈색점질토를 일정한 범위만큼 정지한 후 암황갈색 풍화암반토를 수평상으로 쌓아올린 다음 분구를 굴착하여 석곽묘를 축조하였다. 분구 주위로 주구를 돌렸다.

28호분은 잔존 분구 직경 13m, 높이 2m이며 석곽묘 2기를 축조하였다. 암황갈색점질토와 암황갈색 풍화암반토를 2m 정도를 성토하여 분구를 조성한 후 굴착하여 1곽을 축조하였다. 2곽은 1곽의 상부를 굴착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아

분구를 수직확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석곽은 길이 4~5m이다.

내산리 36호분은 잔존 분구 직경 13.5m, 높이 2.5m이며 5기의 석곽묘를 축조하였다. 묘역을 정지하고 2m 이상 성토하여 분구를 조성한 다음 재굴착하여 석곽을 축조하였다.

### 3. 횡혈식석실묘

6세기를 전후하여 가야지역은 수혈식석곽묘를 대신하여 수장층을 중심으로 횡혈식석실묘가 도입된다. 가야지역 석실은 크게 두 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령을 중심으로 함양, 합천 등 북부 내륙지역은 고아동벽화고분 유형이 유행하고, 고성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지역은 송학동유형 석실이 유행한다.<sup>22)</sup> 고아동벽화고분이나 고아동고분 유형은 장방형의 평면형태와 우편재연도, 터널형천장이 특징이고, 송학동고분 유형은 세장방형평면과 양수식연도, 평천장구조가 특징이다.

송학동유형 석실은 고성을 중심으로 고성 연당리, 진주 수정봉·옥봉, 진주 무촌리, 의령 중동리 등 남해안과 남강 주변에 분포하며 고성지역의 최고 수장층 고분인 송학동 1B-1호분을 그 조형으로 한다. 송학동유형 석실은 소가야지역 세장방형석곽묘의 축조기법에 일본 북부구주지역 석실의 요소가 결합되어 생성된 것이다. 북부구주계 석실의 영향은 문주석·문지방석·문비석을 갖춘 정연한 현문구조, 현문부를 대형 판석으로 폐쇄한 점, 현실 천장과 벽면을 붉게 도포(塗布)한 점 등에서 확인된다.

송학동유형 석실은 현실의 바닥에 역석을 깔았고 피장자는 주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안치된다. 추가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한번 정도 이루어진다. 송학동유형 석실은 6세기 초에 성립하여 점차 주변지역 수장층과 중·하위층의 묘제로 확산된다. 도입기의 석실은 현문부에 문지방석과 문주석, 문미석 등이 설치되거나 확산형은 특별한 문틀시설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변 지역의 수장층과 중·하위층의 묘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현실 평면비가 축소되고, 연도 및 묘도의 길이가 짧아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송학동유형 석실의 분포는 고자국의 세력범위를 보여주는데 고성을 중심으로 남해안과 남강수계에 영향력을 미친다.

#### 1) 송학동 1B호분

1B호분은 횡혈식석실이며, 주축은 동-서 방향이다. 현실은 길이 6.7m, 너비 2.0m, 높이 1.58m로 세장방형이며, 연도는 길이 3.15m, 너비 1.0m, 높이 1.48m

22) 허승철, 『伽耶地域 石室의 受用과 展開』, 『伽耶文化』제18호, (재)伽耶文化研究院, 2005.

로 좁고 길다. 현실과 연도는 납작한 할석을 수직으로 쌓아올려 축조하였다. 후벽과 양장벽을 동시에 쌓아올렸고, 축조 공정에 따라 전벽과 연도를 덧붙여 쌓았다. 현실은 평천장구조로 10매의 판석을 벽석 상단에 걸쳐 놓았다. 바닥은 생토층에 회청색 점질토를 깔 다음 편평한 판석을 전면에 깔고 그 위에 잔자갈을 깔았다. 특이하게 남장벽 상단부에 150cm 간격으로 박은 철못이 6개 확인되었는데 그 용도는 확실치 않다. 또한 후벽과 인접하여 목제선반을 끼웠던 것으로 보이는 틈새가 확인되었는데 가로 36~40cm, 세로 5~7cm이다. 역시 그 용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문부 양측에는 문주석을 세웠고, 문지방석과 판석으로 된 문비석이 설치되었다. 현문부의 구조는 거제 장목고분과 장성 영천리고분, 함평 신덕고분, 해남 조산고분 등과 유사하다. 연도 바닥에는 잔자갈을 깔았고, 연문부에는 판석을 세우고 그 앞쪽에 할석을 쌓아 폐쇄하였다. 현실과 연도 개석이 단차 없이 연결되어 축조된 것이 특징이다. 분구의 주위에는 단절형 주구를 설치하였고, 내부에 적갈색 연질의 원통형토기를 수립 혹은 매납하였다. 원통형토기는 일본 고분의 하나와 또는 영산강유역의 분주토기와 유사하다.

1B호분 석실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석실 내부에 행해진 주칠(朱漆)이다. 벽면에는 황회색 점토를 발라 면을 고른 다음 붉게 칠하였고, 천장은 석면에 그대로 칠하였다. 벽면은 점토가 대부분 탈락되어 전모를 알기 어렵고, 천장 역시 기하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석실 내부를 붉게 칠한 사례는 일본 북부 구주지역 석실에서 확인되며, 해남 장고봉고분과 함평 신덕고분에서도 확인된다.(사진 2·3)

피장지는 목관에 안치되었는데, 꺾쇠의 위치로 보아 현실 중앙에 2개의 목관이 나란히 놓였다. 석실내부에서 소가야토기를 중심으로 대가야 개배와 장경호, 신라계 대부장경호, 왜계 유공광구소호 등 주변 각국의 토기가 다량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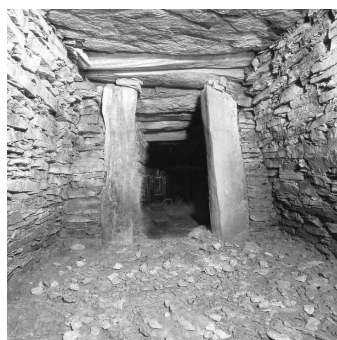


사진 2. 송학동 1B-1호분  
(동아대학교)



사진 3. 해남 장고봉고분

축조 시기는 6세기 전엽으로 추정되며, 한번 정도 추가장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B호분의 분구 가장자리에는 두기의 석곽묘가 추가로 축조되었는데 1B-2호묘와 1B-3호묘이다. 출토유물로 보아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 2) 송학동 1C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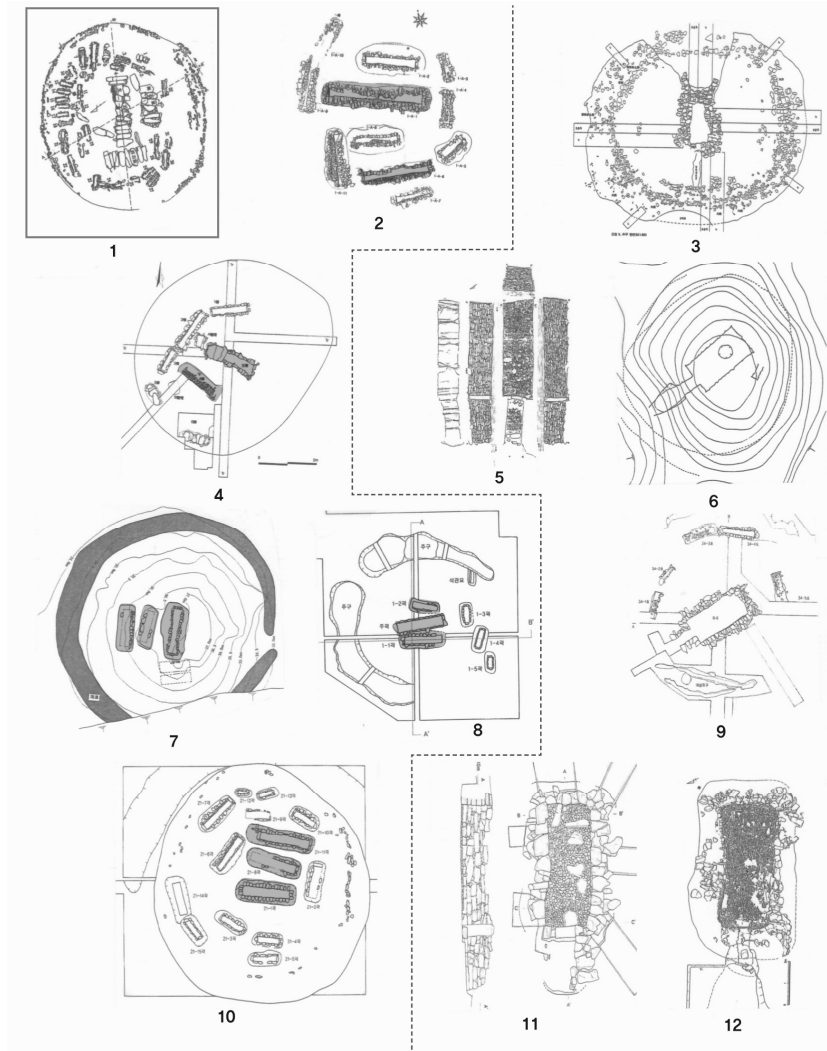
1C호분은 1B-1호분 석실에 비해 현실이 넓어져 장방형구조로 바뀌었고, 천장이 높아졌다. 반면 연도는 극히 짧아졌다. 현실은 길이 5.6m, 너비 2.6m이며, 잔존 높이는 2.4m이다. 연도는 길이 2.0m, 너비 0.6m, 높이 1.53m이다. 현실의 주축방향은 1B-1호분 석실과 같이 동-서 방향이다. 현실과 연도는 편평한 할석을 이용하여 쌓아올렸으나 조잡하고 벽석의 크기도 균일하지 않다. 현실이 높고 벽석 상단부가 내경하고 있어 궁륭상 천정으로 추정된다. 현문부에 문주석과 문비석이 설치되지 않았고, 연도와 현실의 높이도 차이가 확연하다. 연도 개석은 3매이며, 현문부에는 2매의 판석을 세워 폐쇄하였다. 현실바닥에는 잔자갈을 깔았는데 후벽부에서 판상석이 일부 확인된다. 유물은 대부분 도굴되었으나 소가야계·대가야계·신라계 토기와 함께 청동제고배·장식대도·자엽형행엽·은제대금구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과 석실의 구조로 보아 축조 시기는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 3) 내산리 34호분

34호분은 직경 20m의 원분이며 봉분 중앙에 횡혈식석실을 축조하고, 그 주위로 5기의 석곽을 축조하였다. 현실은 길이 5.20m, 너비 2.45m, 잔존 높이 1.60m이다. 현실은 평천장구조로 내부에서 무너져 내린 7매의 개석이 확인되었다. 현실바닥은 흑갈색점질토를 정지하고 작은 점판암을 2~3겹 깔았다. 현문부 쪽에는 소형 역석을 깔았고 후벽 쪽에는 관대를 설치하였다. 관대는 길이 100cm, 폭 20cm의 점판암이다. 연도는 양수식이며 길이 1.70m이다. 묘도는 1.0m 정도이고 바닥에 흑갈색점질토를 깔았다. 유물은 후벽과 남장벽, 현실 중앙, 연도부 등 몇 개의 단위로 나뉘어 부장되어 있다. 현실에 소가야와 대가야 토기가 다량 부장되었고, 대도·철모 등 무구류, 등자·안고·운주 등 마구류도 출토 되었다.

## 4) 내산리 64호분

64호분 석실은 길이 4.3m, 너비 1.5m로 장방형이며 양수식구조이다. 현실바닥에 점판암을 깔 다음, 그 위에 잔자갈을 2~3겹으로 촘촘히 깔았다. 연도는 폭 95cm, 길이 100cm이며 문주석이나 문지방석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고 바닥



도 5. 고성지역 분구묘와 석실(송:송학동, 내:내산리, 울:울대리, 연:연당리)

1:묘형 비교, 고령지산동44호분, 2:송1A-1호분, 3:거제 장목고분, 4:내8호분, 5:송1B-1호분, 6:연20호분, 7:울2호분, 8:내1호분, 9:내34호분, 10:내21호분, 11:내60호분, 12:송1C호분

에는 현실과 같이 잔자갈을 촘촘히 깔았다. 현실 측벽은 평직하였고 연도 측벽은 길이 70cm의 장대석을 평직한 후 쌓아올렸다. 유물 중 토기류는 후벽과 전벽쪽에 부장되었고 중앙부에서 대도·철촉·철부·이식 등이 출토되었다. 경식은 전벽쪽에서 출토되었고 청동방울은 전벽 모서리에서 출토되었다. 토기는 유공광구소호를 비롯하여 소가야 개배·수평구연호·발형기대, 대가야 개·개배·파배 등이 다량 부장되었다.

## V. 고자국의 성립과 전개

### 1. 성립기

고자국 성립기의 실상을 알려주는 고고학 유적은 많지 않다. 솔섬 석관묘 유적과 동외동유적이 조사되어 그 일단을 엿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은 베일에 싸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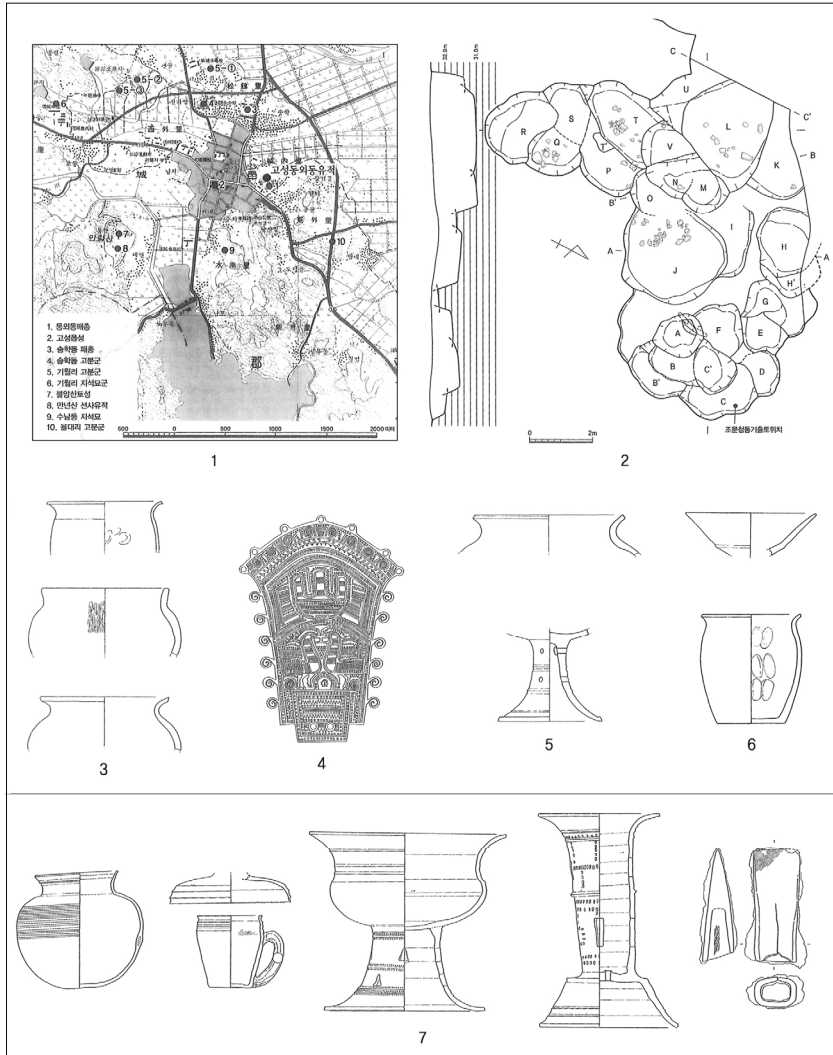
솔섬유적은 원삼국시대에 형성된 유적으로 1974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석관묘 10여 기를 조사하였다. 석관묘는 바닥에 판석이나 천석을 깔았고, 벽석은 판석을 세워 축조하였다. 개석도 동일한 재질의 판석을 이용하였다. 석관묘에서 무문토기 호, 와질토기 주머니호, 유구석부, 철검 등이 출토되었다.

동외동유적<sup>23)</sup>은 당산으로 불리는 해발 30m 내외의 구릉 정상부와 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구릉 정상부는 평면 원형의 대지상 지형이다. 유적은 모두 4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를 통해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4세기까지 주거지·폐총·의례수혈·야철지 등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구릉은 용도에 따른 철저한 공간분할이 확인되는데 구릉 정상부는 의례공간, 그 하단은 주거지, 주거지 아랫단에는 폐총이 형성된다. 구릉 정상부에서 조사된 의례수혈은 수혈이 연속적으로 중복 조성되는 것으로 수혈의 전체 범위는 10m 이상이다. 내부에서 목탄과 갈판, 연질토기와 도질토기가 출토되고, C수혈에서는 제사용으로 판단되는 조문청동기가 출토되었다. 사면부에 조성된 주거지, 폐총에서는 고자국의 대외관계를 보여주는 漢鏡, 왜의 광형동모와 야요이토기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冶鐵地는 동아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는데, 철재와 송풍관으로 추정되는 토관이 출토되었다. 동외동유적의 곳곳에서 철재가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제철작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자국 성립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임에 틀림없다.(도 6)

동외동유적으로 판단하면 고성읍 일대가 고자국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수장층 묘역이나 토성 등 수장의 居館이 확인되지 않아 반론은 만만치 않다.<sup>24)</sup> 동시기의 김해 봉황동토성과 대성동고분군, 합천 성산토성과 옥전고분군의 경관과 비교하면 고성읍 일대의 경관은 차이가 있다. 고자국 성립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볼 수 있다.

23) 동아대학교박물관, 『상노대도-고성 동외동폐총』, 1984.

24) 조영제, 『小加耶의 古墳文化』,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6쪽.



도 6. 고자국 성립기의 유적과 유물

1. 고성 동외동유적, 2. 가지구 1호 수혈, 3. 가지구 1호 A수혈 출토유물, 4-5. 가지구 1호 C수혈 출토유물, 6. 가지구 1호 D수혈 출토유물, 7. 고성 송학동 1E호묘 출토유물

2~4세기 남해안 일대는 김해를 중심으로 결집되었다. 이 시기 남해안은 김해 양동리고분군과 대성동고분군 축조세력이 장악하였다. 후기 외질토기 문화권이 남해안을 따라 고성 동외동유적까지 이어진 점, 동외동유적에서 출토된 왜계 광형동모와 하지키는 김해 세력에 의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해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의 관계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포상팔국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전쟁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 시기 남해안에 여러 소국이 존재했던 것은 확실하다. 남해안에 존재했던 고자국, 사물국, 골포국 등은 김해 가락국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성립기의 고자국은 김해 가락국에 비해 현저히 열세였으므로 선진지역과 유사한 수장층 묘역의 조성과 토성의 축조는 힘들었을 것이다. 고자국 성립기의 취락은 고성만을 따라 형성된 자연제방과 송학동고분군 일대의 미고지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연제방은 동외동유적에서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취락이 입지하기에 양호하다. 고성읍성 등 가야 이후 시기의 중요 건물과 민가가 밀집해서 조성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송학동고분군에서 동서를 길게 뻗어있는 미고지 역시 취락이 형성되기에 적당하다. 『文化遺蹟總覽』에 따르면 고성여중 일대를 송학동패총으로 기록하고 있고 동외동유적과 비슷한 시기의 생활유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상당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만 송학동고분군은 미고지를 따라 점점이 분포한다.(도 7)

종합하면, 고자국 성립시기의 생활유적은 미고지와 자연제방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수장층 묘역도 주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해안가의 특성상 제한된 생활공간은 반복해서 재사용되면서 이전 시기의 유적은 상당부분 훼손되었을 것이다. 비교적 높은 지대에 형성된 동외동유적과 송학동고분군만이 남겨질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고자국 수장층의 대형 목곽묘는 송학동고분군 주변의 미고지(유물산포지)에서 확인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러나 그 실상은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달리 소규모일 가능성이 높다.



도 7. 기월리고분군 1·2·3, 송학동고분군, 송학동고분군 1·2, 송학동 유물산포지

## 2. 발전기

5세기에 접어들면서 남강수계와 남해안 일대는 대가야·아라가야 토기와 구별되는 소가야토기 문화권이 형성된다. 소가야토기는 고성 등 특정한 정치체를 중심으로 출현해서 순차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산청과 진주, 고성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립한다. 유사한 토기양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자체적인 개발보다 주변 세력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세기부터 형성된 아라가야와 경남 서부지역의 관계망으로 볼 때 소가야토기 문화권은 아라가야토기의 제작기술이 전파되면서 성립한다는 견해<sup>25)</sup>가 설득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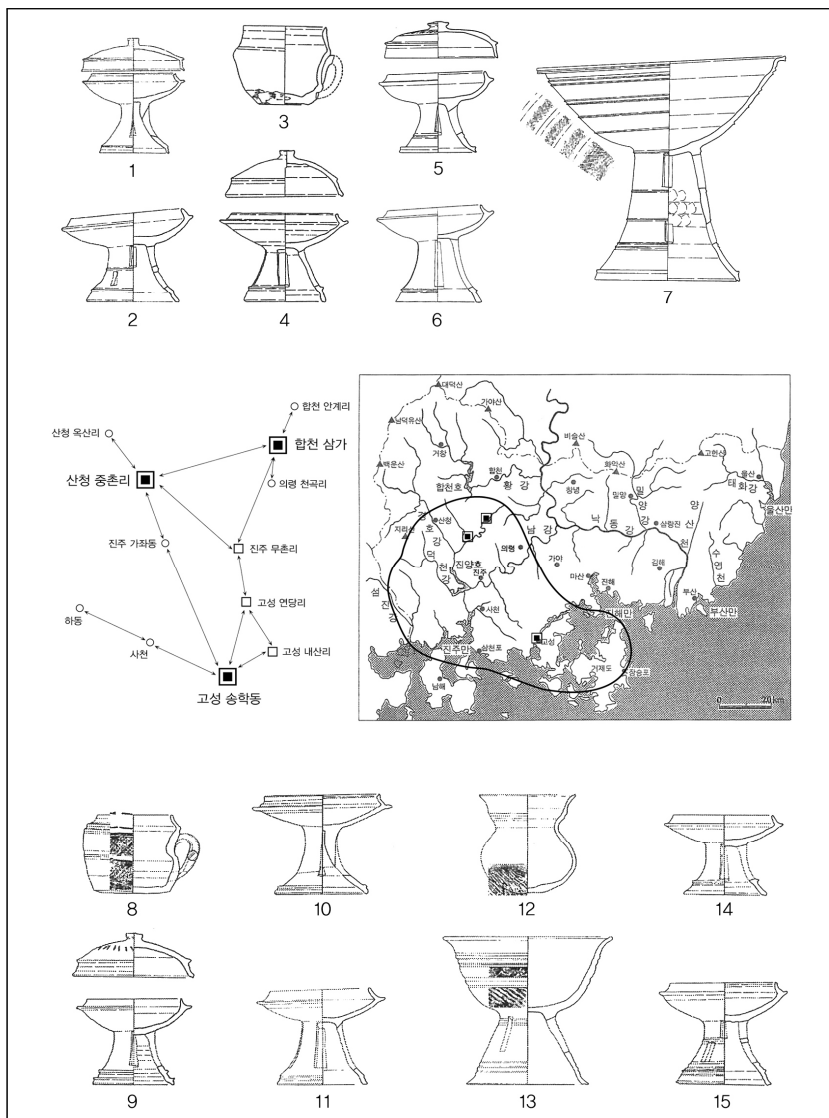
고자국을 포함한 소가야문화권은 5세기 전반부터 급성장한다. 가야 소국들의 성장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했을 것은 당연하지만 4세기까지 남해안과 낙동강을 장악하던 김해 세력의 몰락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야의 혼란기는 고자국을 비롯한 가야 소국들에게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가야 각국은 독자적인 교역망을 갖추게 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재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해안과 남강수계의 소국들은 지리적인 환경조건과 자원 부족, 주변 강국들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연합 또는 연맹의 관계를 형성한다. 소가야는 남강수계와 남해안 세력이 결합하면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도 8)

소가야토기는 산청·진주 등 남강수계와 고성·사천·통영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넓은 분포권을 형성한다. 5세기 후반부터는 함안 칠원과 창원, 전남 동부 지역에도 소가야토기의 확산이 눈에 띈다.

묘제도 소가야 발전기의 역동성을 반영한다. 고성을 중심으로 고대한 다곽식분구묘가 축조된다. 분구묘는 영산강유역과 일본열도에 유행한 묘제로 이들 지역과 고성이 광역의 관계망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경남 서부지역 정치체의 성장도 두드러진다. 산청 중촌리고분군과 합천 삼가고분군, 진주 수정봉·옥봉고분군 등 중심고분군의 규모가 확대되고 고층이 군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주변에 중소형 고분군이 증가하고 새롭게 고분군이 형성되기도 한다. 몇 개의 단위에서 중심고분군과 중소형고분군의 상하관계망이 형성된다. 경남 서부지역 가야 집단이 성장하고 고층을 축조할 수 있는 상위계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물도 이전 시기와 달리 대도, 장식마구, 금공품 등 위세품이 증가한다. 위세품 중에는 주변 각국으로부터 입수한 것도 상당수 확인된다.

남해안에 위치한 고자국은 5세기 후반부터 급성장한다. 고자국의 성장과 발

25) 박승규, 『慶南 西南部地域出土 陶質土器에 대한 研究』, 『慶尙史學』9, 1993.



도 8. 소가야 발전기(5세기 4/4분기~6세기 1/4분기)의 토기 분포권과 내부구조

1. 산청 죽촌리 3호 東석곽묘, 2. 산청 죽촌리 21호 東석곽묘, 3-4. 진주 무촌 3구 54호묘,
5. 합천 삼가 M8-1호분, 6-7. 합천 삼가 11호분, 8-14-15. 고성 연당리 18호분,
9. 고성 신용 I 4-4호분, 10. 고성 연당리 14호분, 11. 고성 내산리 3석곽묘

전은 대외교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가야의 대외교류는 5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변동한다. 3~4세기는 낙동강 하류역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일원적인 교역체계가 형성되었으나 5~6세기는 가야 각국의 성장과 더불어 다원적인 관계망을 형성한다. 그 중에서 가야의 대내외 교역망의 새로운 거점으로 대두된 지역이 남해

안의 고성이다. 고성은 김해를 대신하여 남해안의 해상교역로를 통해 중국·백제·왜의 국제교역을 중개하였고, 남해안-남강을 연결하는 ‘소가야 루트’를 통해 가야 내부의 교역을 주도하였다.<sup>26)</sup> 송학동과 내산리고분군에 출토되는 유공광구 소호와 개배는 백제와의 교류를 반영하고, 송학동 1A-1호묘·1A-2호묘·1A-11호묘·1B-1호묘 출토 스테키와 1A-1호묘 출토 쌍엽검통형행엽, 1B-1호묘·내산리 34호분 출토 사각패제운주, 내산리 34호분 출토 철제등자는 일본열도에서 수입된 유물이다. 또한 남해안 일대에 왜계고분이 축조되고, 북부구주지역 석실을 수용하여 송학동유형 석실이 성립되는 것도 고자국의 국제성을 반영한다.

### 3. 쇠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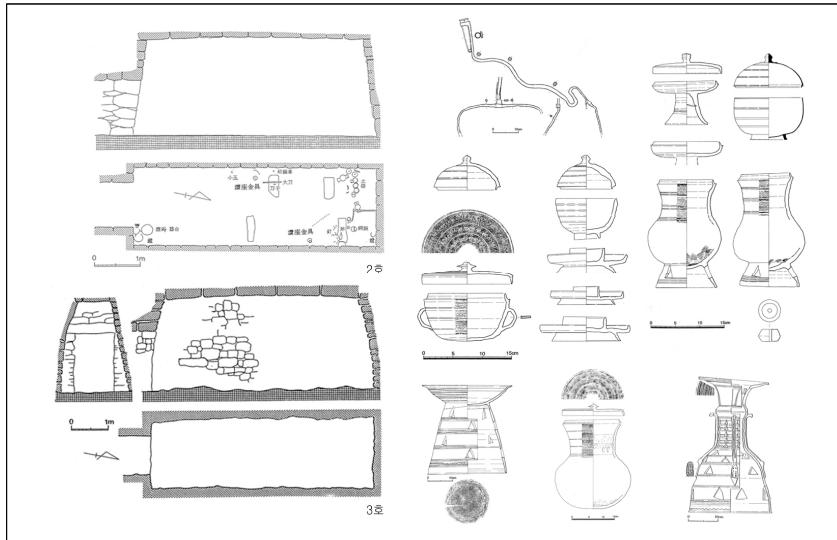
512년, 513년경 任那 4縣과 하동 혹은 섬진강수계로 비정되는 己汶, 帶沙 지역을 장악한 백제는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에 맞서 대가야 역시 소가야, 아라가야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고성 송학동·내산리·울대리·연당리 고분군에 다량 유입되는 대가야 유물은 이런 분위기를 대변한다. 신라 역시 가야 진출을 본격화하는데 송학동과 내산리고분군에 부장된 신라계 유물이 이를 말해준다.

주변 강국들의 세력 확장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은 소가야이다. 산청과 함천의 소가야 세력은 대가야의 영향력 아래 놓이고, 하동과 진주는 백제의 진출 통로가 된다. 진주 수정봉 2·3호분, 옥봉 7호분에서 출토된 동완과 동완형토기·받침형토기·원환비 등은 백제계 유물로 섬진강 하류에서 하동을 거쳐 진주로 이어진 백제의 진출과정을 보여준다.(도 9) 백제는 산청과 고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세력인 진주지역 수장층을 지원하면서 남강을 따라 함안 아라가야와 소통한다. 함안 남문의 11호분 석실의 출현과 백제계 유물의 부장은 백제와 아라가야의 관계를 반영한다. 대가야와 백제의 공세에 맞서 신라는 고자국 수장층의 회유에 집중한다. 남해안을 장악하여 백제와 왜의 연결루트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송학동 1B-1호분과 내산리 8호분에 부장된 신라계 대부장경호, 송학동 1C호분에 부장된 청동제고배와 대도, 화려한 장식의 刺葉形杏葉은 신라에서 반입된 유물이다.

대가야, 백제, 신라의 과상공세로 소가야는 점차 쇠퇴한다. 남강수계와 남해

<sup>26)</sup> 허승철, 『외래계문물을 통해 본 고성 소가야의 대외교류』,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김해시, 주류성, 2011.

안권은 연결망이 와해된다. 고자국은 가야멸망시기까지 세력을 유지하였지만 신라의 진출과 함께 해체되면서 신라의 지방으로 편재된다. 고자국의 멸망시기는 560년 전후로 추정된다.



도 9. 진주 수정봉·옥봉 석실(2호분·3호분) 및 백제계, 대가야계 출토유물

## VI. 맺음말

가야는 정치적인 성격이나 뚜렷한 영토범위를 기준으로 규정되기 보다는 문화적인 동질성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고학에서는 토기양식, 묘제, 고분군의 위계와 분포 등을 이용하여 백제, 신라와 대비되는 가야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경남 서부지역에는 다수의 가야 소국이 존재했고 공통의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이들 소국은 가야 북부지역의 대가야와 대비하여 소가야로 구분하였다.

소가야의 대권역은 낙남정맥을 기준으로 남강수계권과 남해안권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산청권·합천 삼가권·진주권이 중심이고, 후자는 고성권을 중심으로 통영권·사천권이 포함된다. 중심고분군은 산청 중촌리고분군과 합천 삼가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이다.

고자국은 고성에 존재했던 가야 소국을 가리킨다. 송학동고분군은 고자국

최고 수장층 묘역으로 고성평야를 내려다보는 독립 구릉의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다. 고자국은 송학동고분군과 기월리고분군, 울대리고분군 축조집단이 중핵을 이루고, 내산리고분군과 연당리고분군 축조집단이 외곽을 형성한다.

고자국의 묘제는 목곽묘에서 석곽묘, 석실묘로 변한다. 성립기의 대형 목곽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송학동고분군 주변의 미고지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5세기 후반부터는 구릉의 정상부를 선점하고 고대한 분구묘가 연이어 축조된다. 분구묘는 영산강유역이나 일본열도에서 유행한 묘제로 고자국이 이들 지역과 국제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석실묘는 6세기 전엽에 출현하는데 북부구주지역 석실의 영향이 크다. 송학동유형 석실은 고자국 주변의 수장층 묘제로 확산한다.

고자국은 가야의 대외교역을 주도하면서 성장한다. 고자국은 5세기 후반부터 백제-영산강 유역-가야-일본 규슈-왜 왕권을 연결시켜주는 국제교역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남해안-남강을 통해 가야 내륙지역에 문물을 전달하는 관문사회로서 기능하였다.

■ 투고일 2018년 7월 25일 |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30일 ■

## 참고문헌

### <보고서>

- 경남대학교박물관, 『고성 연당리고분군』, 1994  
국립중앙박물관, 『고성 패총』, 1992  
국립진주박물관, 『고성 울대리 2호분』, 1990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고성 내산리고분군 I~III』, 2002~2007  
동아대학교박물관, 『상노대도-고성 동의동패총』, 1984  
\_\_\_\_\_, 『문화유적분포지도 - 고성군-』, 2004  
\_\_\_\_\_, 『고성 송학동고분군』, 2005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고성 기월리1호분』, 2013

### <논문>

- 김규운, 『考古資料로 본 5~6세기 小伽耶의 變遷』,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준식, 『가야 횡혈식석실의 성립과 전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지연, 『小伽耶樣式 土器의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김태식, 『伽耶의 社會發展段階』,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한국고대사연구회편, 1990  
박승규, 『慶南 西南部地域 出土 陶質土器에 대한 研究』, 『慶尙史學』9, 1993  
백승욱, 『固城 古自國의 形成과 變遷』, 『韓國 古代社會의 地方支配』, 신서원, 1997.  
백승충, 『伽耶의 地域聯盟史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여창현, 『小伽耶聯盟體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이영식, 『문헌사학으로 본 가야』, 『가야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진인진, 2016.  
이형기, 『小伽耶聯盟體의 成立과 그 推移』, 『民族文化論叢』17,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7  
장윤정, 『소가야지역의 대외교류』, 『삼국시대 남해안지역의 문화상과 교류』, 한국고고학회, 2011.  
조영제, 『小伽耶의 古墳文化』,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 조영현, 『소가야의 묘제』, 『고성』, 국립진주박물관, 2014
- 하승철, 『伽耶地域 石室의 受用과 展開』, 『伽耶文化』제18호, (재)伽耶文化研究院, 2005
- \_\_\_\_\_, 『외래계문물을 통해 본 고성 소가야의 대외교류』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김해시, 주류성, 2011

Abstract

## Goseong Songhak-dong Tumuli and Gojaguk

Ha Seung Cheol

Sogaya (small state), along with Ara-Gaya was a major political force that formed the federation of Gaya states (A.D. 350 - A.D. 562). To this day, most researchers as well as public believed that the territory of Sogaya was the area around today's Goseong in Gyeongsangnam-do.

However, Sogaya was most likely the term that referred to many tribal states that existed in the western part of today's Gyeongsangnam-do area, including Goseong.

The result of recent archeological researches shows that the western part of Gyeongsangnam-do area exhibits a significant level of spiritual and physical homogeneity in terms of forms of pottery, tombs and funeral rituals. However, it is not plausible to think that Goseong was a center of development of such a wide cultural band. The distribution of tombs indicates that many small states existed around several areas that include Goseong, Jinju and Sancheong. It appears that these small states occupied a common cultural band.

Pottery culture unique to Sogaya began to form around A.D. 5th century and geographic characteristics become prominent as time passed. During the growth peri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ogaya's potteries took place in many regions: the Nam-gang river area including Sancheong and Jinju; the southern sea coast area including Goseong, Tongyoung, Sacheon and Hadong

Based on pottery forms, tomb style and distribution of tombs, the development of Gojaguk could be described in terms of three stages: foundation period (A.D. ~350), period of growth (A.D. 350~525), period

of decline (A.D 525~560)

In terms of tomb style of Gojaguk, wooden coffin tombs are built during the 4th and the early 5th century, which are replaced by stone coffin tombs by the middle of the 5th century. Then, beginning in the 6th century, stone chamber tombs began to spread widely, starting with the upper class people.

People who built Songhak-dong tumuli in Goseong is considered a leader of Sogaya from the late 5th to early 6th century. It is speculated that Gojaguk rapidly grew as it traded with other Gaya states, Baekje and Japan beginning in the late 5th century, which is proven by the distribution of potteries of Sogaya.

After the mid-6th century, Baekja and Shilla began to encroach upon Gaya region, which led to the fall of Gojaguk, the fall of Gojaguk is speculated to be around A.D. 560.

Key Words : Goseong, Songhak-dong Tumuli, Gojaguk, Sogaya, Tomb style